

제6호 태풍 '카눈' 복상에 따라 항공기 결항, 우회 등 안전조치를 지속 시행 중입니다.(2보)

- 태풍 진로, 강도 등에 따라 공항별 항공기 운항계획 조정, 항공로 우회조치
- 제주공항 오전부터 일부 운항 재개, 남부권 공항 오후부터 운항 재개 예상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제6호 태풍 카눈의 복상에 따라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하여 항공기 운항계획의 조정, 운항경로 우회 등 안전 조치를 지속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.

□ 8월 10일(목) 13시를 기준으로 태풍의 강풍 등 영향에 대비하여 당초 운항계획 1,857편 중 386편(국제선 80, 국내선 306)이 취소되었다. 오늘 오전 제주공항을 시작으로, 오후부터는 남부지역 공항들도 점진적으로 운항이 재개되겠지만, 수도권·충청·강원권 공항은 오후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운항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.

* (주요공항 결항편) 제주 130, 김해 85, 김포 92, 인천 18, 무안 2, 광주 7, 청주 14, 여수 4 등

○ 남부지역 공항 중 제주, 광주, 무안공항을 제외한 김해, 대구공항 등 동부 지역은 강풍 영향으로 아직까지 운항이 제한되고 있다.

○ 이번 태풍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았던 제주공항은 오늘 오전 09:02분 김포공항발 티웨이 항공편 도착을 시작으로 일부 운항이 재개되었다.

○ 앞으로 태풍의 이동 속도에 따라 유동적이겠지만 남부지역의 나머지 공항들도 늦은 오후부터는 운항이 재개될 수 있을 전망이다.

□ 한편, 국제선의 경우 오늘 새벽 03:00시부터 우리나라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태풍의 경로를 감안하여 최적의 항공로로 우회 또는 결항 조치하고 있으며, 항공로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간 간격은 평소보다 더 넓게 적용 중이다.

* 우회 조치 항공편 : 서해상 우회 항공로 80편, 동해상 우회 항공로 65편

□ 항공기 결항 등 수시로 변경되는 운항정보는 항공사에서 예약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안내 중이며,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의 공항별 누리집에서도 운항 정보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.

○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확정된 운항계획 취소 이외에도 추가적인 결항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공기 이용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항공기 운항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.

담당 부서 (총괄)	항공안전정책관 항공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동철 (044-201-4244)
		담당자	사무관	김형배 (044-201-4254)
		담당자	주무관	이재석 (044-201-4247)
담당 부서 (항로 우회)	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조정과	책임자	과 장	박주환 (053-668-04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진종 (053-668-0491)

